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7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2017 연간보고서

발행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59길 23 삼모스포렉스 1014호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인	김기석

© 2018 Educators Without Borders
All rights reserved.

목 차

I.	연간보고서 발간사.....	1
II.	활동보고	2
	1. 부르키나 파소 '갭아(GAPA)'사업	5
	2. 삼성 나눔과꿈 MARCA 사업	13
	3. 후속세대 양성사업	22
	가)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7 개최	22
	나) 캠프 후속활동 '배워주미 5기' 출범	27
III.	EWB 소식	28
	1.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28
	2. EWB 창립기념 빈곤퇴치 마라톤 행사 개최	33
	3. EWB 간사 가나안농군학교 체험기	36
	4. EWB BF-부르키나파소 문해교육부와 MOU 체결	41
	5. EWB- 와가두구 9 구시와 MOU 체결	42
	6. 컨선월드와이드코리아와 교육 토크콘서트 개최	43
IV.	2017년 정산 세입 제출 보고	46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48
VI.	2017년 후원자 명단.....	49

I. 연간보고서 발간사

2017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후 빈곤 종식, 복리 증진, 교육 보장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과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높은지, 효율적 추진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수준의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한 글로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WB는 2007년 창립 이후 열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차근차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켜보면 이러한 EWB의 발걸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단년도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GAPA in Burkina Faso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자력 운영이 가능한 모델로의 이행 과정 중에 있으며,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 단체로서 개발컨설팅에 주력하여 UNDP 지원 아프리카 3개국 동료평가 사업, 세네갈과 에티오피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였고,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금년 사업과 연구를 위해 일한 사무국 모든 분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이러한 노력과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우리 교육가들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II. 활동보고

1. 부르키나 파소 '갭아(GAPA: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사업

1) 부르키나파소 상반기 모니터링 출장 실시

◇ 협력기관과의 합동 만찬

7월 10일, 11일에는 EWB와 10년간 부르키나파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기관 APENF의 대표이사 포다(Mr. PODA)씨와 김기석 대표를 비롯한 출장팀 일행과 면담의 시간과 전 직원 합동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APENF는 부르키나파소 전국 규모로 활동하는 비형식교육증진회로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포다씨는 3대 대표이사로 올해 취임 예정이다. 김기석 대표는 "APENF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APENF와 EWB의 지난 10년간의 우정과 신뢰는 앞으로도 변함 없이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포다씨는 "지난 10년간 협력해온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든든하며, 두 기관 모두 어려울 때일 수록 신뢰를 견고히 하여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업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합동 만찬을 열면서 APENF의 사무국장 제르멘(Germaine) 여사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알고 원하는 바들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축배사를 하였다.

◇ 상반기 공동협의회 개최

7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EWB와 협력하고 있는 사업 실무자들이 모여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동협의회는 매년 반기마다 마을관리자 및 협력기관 APENF 실무자, EWB 실무자 등 중간관리자들이 모여 사업에 대해 사업을 상호평가하고 교훈 및 개선점들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이다.

올해는 마을마다 실시되고 있는 GAPA 문해교육사업 및 MARCA 양계지원사업, 소액대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문해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질적 개선 및 참여도 증진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를 끌어내어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연결시키도록 관리자와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촉구하였다.

양계지원사업은 올해 첫 실시된 사업으로 각 실행 주체들마다 시행착오가 여럿 있었으나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수혜자들이 참여의지가 높고 마을 내에서도 양계지원사업으로 인해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음이 이미 큰 성과라고 여기며 관리자들을 독려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소액대출사업은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차이와 이견들이 있었지만 소액대출 코디네이터와 마을관리자들이 모두 자신을 양보하면서라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주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마을관리자들의 이런 모습은 출장팀에게도 다시금 의지를 다지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이다영 간사는 밝혔다.

◇ EWB 부르키나파소 지부 제 1회 이사회 개최

EWB는 금년 1월 중 부르키나파소 지부를 설립하였다. 이번 7월 10일에는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제 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기석 대표이사, 박수정 사무국장, 황옥곤 (부르키나파소 한인회장), 지브릴 카나조에(Kanazoe Freres 그룹 대표), 포다(APENF대표)씨가 이사회 멤버로 선임되었다. 또한 EWB 부르키나파소 지부 사무국장으로 현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자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개발협력 협동과정 석사를 마친 서지 킬렘(Kyelem Segre)이 임명되었다. 이사회 통역 및 기록으로 김현지, 이다영 간사가 함께 참여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조직 정비 및 역할 안내, 설립취지 등을 공유하였다. 장차 부르키나파소 지부 자체 힘으로 고유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날이 어서 다가오기를 기대하였다.

이사회 멤버 중 하나인 지브릴 카나조에(Djibril Kanazoe)는 부르키나파소 국내 대기업 Kanazoe Freres 그룹의 대표로서 부르키나파소의 발전과 국민의 의식교육 등에 관심이 많으며, 개인을 넘어 그룹 차원에서도 매년 이러한 뜻을 담은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한 가지 실천으로서 매년 회사 부지 주변의 삼림파괴 방지를 위해

매년 6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오고 있다. 특별히 올해 묘목 심기 행사에는 EWB도 함께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anazoe Freres 그룹의 대표 및 50여명 임직원들과 EWB 출장팀은 40도를 웃도는 강한 땀별 아래에서도 한 마디 불평 없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손수 묘목을 심고 즐겁게 교류하였으며, 지역 족장도 함께 나와 감사를 표했다.

이번 출장은 EWB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모니터링을 넘어 다양한 현지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꿈꾸고 실현해 가는 일정들이 유독 많았다. EWB-BF지부의 설립 자립, 현지 협력기관APENF와의 심도 깊은 협의, 마을 센터 관리자들과의 희생, ICC 센터 건축을 위한 현지 정부의 협력과 부지 기증, 부르키나파소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심은 나무들까지. EWB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분명 함께 꿈꾸는 현지인들로부터 가능성을 찾는 시간이었고 이 일들이 싹터서 스스로 성장하는 국가가 되고 지역공동체가 되길 희망하는 출장이었다.

2) 부르키나파소 사업현장 하반기 모니터링 출장



1일차 공동협의회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광명시 지원 글로벌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 및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나눔과꿈 사업의 하반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출장이 진행되었다. 이번 출장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간사들이 함께하여 원활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첫 일정으로 11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공동협의회에서는 EWB, APENF, 각 지역의 담당기관 대표와 소액대출 관리자가 참가했다. 레오, 보보 디올라소, 사바, 부세 지역

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해교육, 기술교육 프로그램과 양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관리자들이 직접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해주었다.

1일차에는 GAPA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문해교육과 기술교육 진행상황을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각 센터의 대표자는 교육을 운영하며 성공적이었던 점과 어려움 및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보보 디올라소 지역의 참여자들은 높은 참석율과 성취도를 보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또한 2일차에는 올해 처음 시작한 양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사 건축, 병아리 구매와 판매와 같은 사업진행 상황과 실적을 공유하였다. 양계활동 자체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참여자들이 있어 초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출장팀은 이번에 변종백신을 전달하여 전염병(변형 뉴캐슬)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올해 양계협동조합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참여자들은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변형 뉴캐슬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출장팀이 가져온
변종백신

올해 하반기 공동협의회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도 아끼지 않고 개선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2017년 사업의 마무리를 바라보는 시점이었기에 각 센터에서는 1년간 사업 진행을 하며 수확한 유익한 결과들을 많이 발표해 주었다. 또한 올해 사업뿐 아니라 내년 사업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하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확인했다.

출장 기간 중에는 EWB의 기관 홍보영상 촬영도 진행하였다. EWB는 오랫동안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홍보역량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출장에는 선정된 수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기관의 대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부세마을의 에밀리언씨와 함께한 촬영은 무더운 날씨에도 원활히 진행되었다. 2015년도 GAPA 문해교육 사업 우수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한 에밀리언씨는 특유의 밝고 친화력 있는 성격으로 이번 촬영에도 흔쾌히 참여했다.

곡식을 말리고 있는 부세마을 주민들

에밀리언씨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과 가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EWB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할 만큼 촬영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었다. 촬영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는데도 마을 사람들의 환대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에밀리언과 딸 아르멜라

2주에 가까운 출장기간 동안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사업의 탐색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를 향해 보여준 현지 파트너 기관과 마을 주민들의 애정과 신뢰였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진행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나타난 삶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바라는 주민들의 배움을 받으며 이번 출장을 마무리하였다.

3) EWB, 광명시 글로벌평생학습 만들기 사업 성과 보고회 발표

지난 3월 9일,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2013년부터 광명시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어 온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 발표하는 성과보고회 자리를 가졌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원 김미란 소장과 관계자들, 일반 지역시민 등 5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평생학습과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내비쳤다.



사업 성과를 발표 중인 김기석 대표

2013년, EWB-광명시-부르키나 파소 기초 문해교육부(MENA)와의 삼자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부르키나 파소 내 5개 지역에 '광명세종문해센터'를 건립하여 날씨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센터와 거

리가 멀어 오기 어려운 수혜자들과 관리자들에게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현지 관리자들과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컴퓨터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자재를 함께 제공하여 이들의 업무 처리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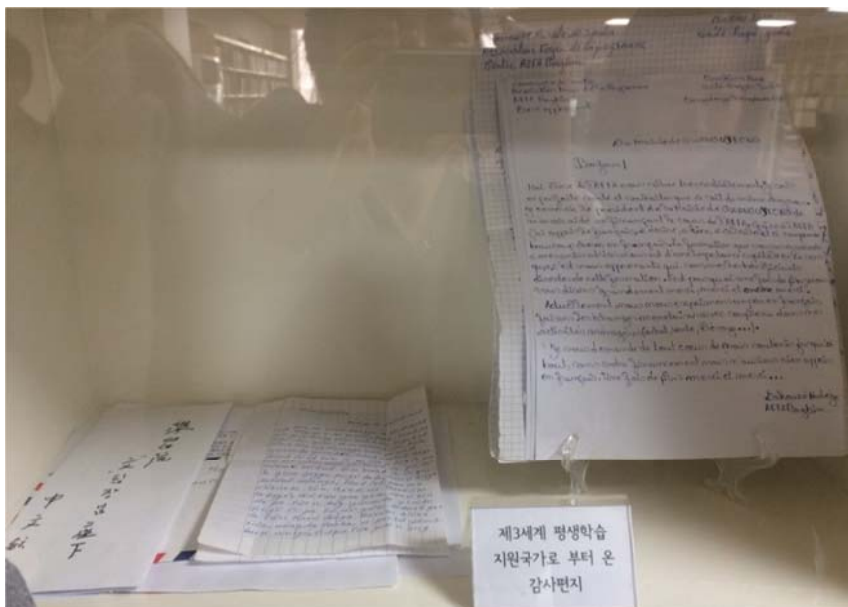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을 통해 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연수를 진행하고, 극빈층 농민 여성 380명 대상 기초 문해교육(프랑스어, 부족어)을 제공함으로써 347명 응시자 중 342명이 통과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42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봉, 수공예품 제작, 가축사육, 경제교육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창출

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에 에이즈 예방이나 조혼 폐지, 여성 교육 참여, 가족계획 세우기 등에 대한 주제를 재미있게 다루는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부르키나 파소의 한 문해센터 교사는 문해교사로 활동하며 본인의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가족들까지 돌볼 수 있게 됨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광명시에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문해교육 수혜자인 마리(Marie)씨는 문해수업으로 배운 프랑스어로 읽기, 쓰기, 숫자 계산하는 것을 배워 손님들에게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들이었다.

이렇게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에 크게 공감하는 시민들을 보며,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 도서관에 전시된 부르키나 파소에서 온 편지

이번 성과보고회는 단순히 사업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멀게만 느껴졌던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에 대해 한층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던 시간이었다. 보고회에 참석했던 광명 시민들은 27년 독재를 평화롭게 이겨내고 민주적으로 대선을 치렀다는 점에

서부터, 부르키나 파소 정부(교육부)의 개발 방향과 정도, 현 교육 시스템, 주요 산업구조

와 일반 가정의 소득 수준, 협동조합의 적용 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었다. 또한 실제 문해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수법과 교재는 무엇인지, 현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앞으로 광명시민들과 많은 직접적 교류가 있기를 적극 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명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호적인 태도를 보며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다시 한 번 광명시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으며, 부르키나 파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열의를 다시 한 번 불태울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광명시와 부르키나 파소의 우호적 교류, 그리고 상호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난 10월에는 국경없는 교육가회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사무국장이 광명시청을 찾아 양기대 광명시장과 만남을 가졌다. 광명시는 그간 쌓아온 평생학습의 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경없는 교육가회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부르키나파소에 국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명시의 사회공헌 의무를 다하고 제3세계에 평생학습 마을을 건설하자는 양기대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광명시는 지속해서 부르키나파소 사업을 지원해왔다. 2017년 현재까지 광명 세종 문화센터 설립,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성인문해 교육, 소득증대

기술 훈련 프로그램, 마을주민 교육인식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양기대 시장은 올해 경기도지사에게 도전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올해가 광명시장으로서의 마지막 임기인 셈이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그간의 사업지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밝히고 양기대 시장의 또 다른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광명시를 찾아 만났다. 양기대 시장도 오히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 인사를 건네며 두 기관장의 만남은 훈훈한 감사와 격려 속에 끝났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앞으로 있을 양기대 시장의 뜻 있는 도전에 많은 축복이 있길 바라며 광명시의 평생학습 마을 건설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했다.

2. 삼성 나눔과꿈 MARCA¹ 사업

1) 부르키나파소 현장 방문기

* 본 기사는 기술연수 연수를 위해 부르키나 파소에 다녀오신 임상훈 박사의 출장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나눔과 꿈' 사업의 일환으로, 양계 활동 지원과 기술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의 농민 여성들의 소득증대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에는 농민 여성들에게 양계 기술을 교육하기에 앞서 마을로 파견할 양계 강사들에게 한국인 양계 전문가를 통한 사전 기술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전문적 기술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마을별 양계인 조합 결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 생산 및 공동 판매로 이윤을 높이고, 공동체를 통한 개개인의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

¹ MARCA 사업은 양계 활동지원 및 기술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 농민 여성의 소득증대 역량 강화 사업의 불어 약자이다.

1. 양계강사 기술연수 준비 과정

MARCA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교육인 양계강사 기술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국내와 부르키나파소 현지 사업장은 연초부터 바빴습니다. 국내에서는 굿파머스의 양계 전문가들과 모여 시골 여성들이 육계를 기르기에 적합한 규모와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지 사업장에서는 이 MARCA 사업에 적합한 농민 여성들과 마을 양계강사를 선발하고, 연수를 준비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했습니다.

강의는 (사)굿파머스 전문가로 활동하시며 글로벌 사료지원 연구소 대표님으로 계시는 임상훈 박사님께서 맡아주셨는데, 이 강의를 위해 한국에서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부르키나파소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임상훈 박사님 출장 중에는 현지 사업장 코디네이터인 김현지 간사, 양진모 간사가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임상훈 박사님이 와가두구에 도착하신 다음 날인 3월 27일에는 교육 준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백신과 주사기, 소독약을 구입하였고 현지 사료공장을 방문하여 부르키나파소의 양계 환경과 사료실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습교육 재료 목록을 미리 양진모 간사가 받아두었고, 재료를 살 수 있는 가게 정보를 알아두느라고생을 해주었기에 이 날 재료 사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사료공장을 방문하신 임상훈 박사님께서서는 마치 “우리나라 50년 전의 방앗간 같은 사료공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관계자들의 선처로 공장의 사료 배합비를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양계강사 기술연수에 대한 기록

양계강사 기술연수는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부르키나파소 Sissili 주 Leo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임상훈 강사님과 일행은 아침 7시부터 수도 와가두구를 출발하여, EWB의 양계 시범 계사가 위치한 Leo시로 3시간 정도 이동하였습니다.

연수를 받기 위해 레오에 모인 교육생은 총 8명이었습니다. 원래는 6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먼 나라에서 전문가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비를 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있어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어느 가정이든 닭을 키우고 있고 종자돈이 필요할 때 닭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아주 친숙합니다. 이슬람 축제, 기독교 성일 같은 축제 시즌에 닭 요리가 메인 요리가 될 만큼 닭 소비가 많아 닭을 수입까지 하는 나라인지라 누구든 양계사업을 해보고 싶을 만한 곳입니다. 양계강사 기술연수에도 2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농민 여성들을 선발하는데도 2배수가 지원해서 선발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닭에 대해 배우는 강의장은 열의가 가득했고 수강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매일 같이 40도가 넘는 고온의 극서기에, 더운 바람을 내뿜는 낡은 에어컨 탓에 강사님은 온몸이 땀으로 다 젖으셨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지만 교육생들의 의욕적인 질문 덕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2일간의 이론 강의 내내 함께해준 통역자 Kora씨의 유창한 영어 덕분에 본인의 부족한 영어실력이 메워졌다고 하시는 겸손하신 강사님이셨습니다.



강의 2일차, 강의중인 임상훈 박사님과 통역인 Kora, 교육생들

교육 중에 모든 참여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사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싼 원료의 조달, 물고기 발효사료, 지렁이를 활용한 양식 등을 소개해주었고 50년 전 200마리로 양계를 시작하여 20만 수의 대농이 된 한국 농가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자 다들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 미강과 식당의 남은 음식물을 수거한 이야기, 계란 값이 하락하자 계란 상인이 계란을 가져가지 않아 양계장에 산더미 같이 쌓인 계란을 시장에 들고 나가 직접 판매한 이야기 등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사료비 절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노력과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않고 당부하셨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모두가 EWB의 양계 시범 계사로 가서 소독기구 활용법, 주요 질병 백신을 실습해보았습니다. 방역과 백신에 대해서도 교육생들이 그다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조류독감 발생 사례를 전하자 아주 놀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범 양계를 하고 있는 나모로씨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며 강의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하마터면 폐사될 수도 있던 닭들을 안전하게 키울 인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순간이면 기술연수를 하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차다고 느껴진다고 사업 담당자는 전했습니다.



강의 3 일차, 백신 접종 실습중인 교육생들

실습을 마친 뒤에는 미리 준비한 성취도평가를 실시했는데 모두들 열심히 강의를 들은 것을 증명하듯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강의 해주신 임상훈 박사님께서 교육생들에게 “문제가 어렵냐고 물으니 강의 시간에 강조한 것들이라 쉽다고 했다”고 하였고, “문제를 좀 어렵게 낼걸 그랬다고 하자 다들 아니라고 하여 한바탕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수업을 마치시고 와가두구(수도)로 돌아오시면서 강사님께서서는 “부르키나 파소에서 농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최대 제한요인은 물 부족이다. 물은 생명이며 농업은 ‘생명산업’인데 강수량이 적고, 주변 국가들과의 불리한 외교조건 때문에 저수지 설치나 지하수 개발도 저조하여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부르키나파소의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기타 일정

교육 전달인 28일에는 하루 시간을 내어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을 대상으로 닭 사육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거주 교민들도 양계에 관심이 많으시기에 전체 교민의 1/3에 달하는 10분이 모이셨는데, 그 중에는 5시간 넘는 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의 척박한 땅에서 닭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던 터라 질문이 끊임없었고 임상훈 박사님께서서는 사료 값을 낮추기 위한 사료 자체 배합법, 질병예방 등 핵심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한인 교민 분들께서는 유익한 정보 얻고 가신다고 감사를 표하셨으며, 임상훈 박사님께서도 현지의 양계 환경과 시장 정보 등을 전해 듣는 시간이셨다고 합니다.

4. 마무리

임상훈 박사는 이번 교육 출장동안 여러 가지 느끼신 것들에 대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착하고 순박했다. 낯선 사람도 Bonjour 한마디를 건네면 누구나 웃으면서 화답했다. 아프리카에서도 못사는 빈국. 자원도 없고 자연환경도 열악한 나라. 가난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여유와 행복이 있어 보였다.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 나라에 와서 많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느낀다. 한국에 돌아가면 좀 더 겸손하고 행복해져야겠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서는 MARCA 사업 담당으로 부르키나파소에 파견된 김현지 간사와, GAPA 사업 담당 및 MARCA 사업을 보조하는 양진모 간사에 대한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임상훈 박사님과 교육생들이 함께 한 컷!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나 자신이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니 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이들과 함께 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은 우리사회를 좀더 나은 사회

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한 톨이라도 절약하려는 모습, 의견이 다르면서도 토의하고 다투다가도 금세 같이 노래 부르는 젊은이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건강함이 그대로 느껴졌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먹고 살기 바빠 일만 했던 우리 세대에 비하면 자유롭고 여유롭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흘리는 이들의 땀과 노력이 그들의 인생에 자양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박사님의 출장기간 동안 동행하며 연수 진행을 준비하고 도와준 간사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2) 부르키나파소, 수혜자 대상 양계 보완교육 실시...47명 수혜자
« 양계활동 자신 있어요 ! »

김현지 간사

지난 7월 3일, 5일, 7일 각각 부르키나 파소 레오(Leo), 보보-디올라소(Bobo-Dioulasso), 부쎬(Bousse) 지역에서 총 47명의 수혜자 대상으로 양계 전문가 방문 보완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굿파머스 신경호 수의사가 방역과 사양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박수정 사무국장, 이다영, 양진모, 김현지 간사와 KCOG-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현장점검팀 김운호 경희대 교수, 이지영 대리가 함께 참여했다. 각 마을에서는 교육 및 질의응답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부 수혜자들의 계사를 직접 방문하여 계사상태를 점검하고 현지의 무더운 기후와 우기철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보 지역 수혜자 계사를 방문한 신경호 수의사 및 EWB 팀이 계사상태를

신경호 수의사는 '한국 양계산업도 (수혜자들처럼) 100수, 200수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평균 계사별 40,000 수의 닭을 키운다'면서, '부르키나 파소는 한국보다 양계 활동에 더욱 유리한 환경인 만큼, 이번 기회를 빌어 내가 닭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

하며 정성을 들인다면 수혜자들 모두 반드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교육 내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수혜자들은 열의 있는 태도로 화답했다.



부세에서 수혜자 대상으로 양계 보완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또한 3일 레오 지역에서는 시범계사 지붕에 한국에서 제작한 단열천을 설치하여 40도가 넘는 계사온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도 하였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때에는 온도가 50도를 육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사의 양철지붕에서 받는 열을 어떻게 차단하고 계사 온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었다. 실제로 특수천을 설치한 직후 계사의 온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계사 수혜자인 나모로 미카울로 씨는 '육계만 키우다가 산란계까지 활동을 확장했는데, 온도가 떨어지니 산란계 부화 시 병아리 폐사율이 확연히 줄었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5일 보보-디올라소에서 부르키나파소 최대 규모의 양계농장 및 사료공장 FAMAS를 방문했다. FAMAS 측의 적극

적인 협조로 병아리 품종, 백신여부, 사료 원료 및 가격을 분석하는 등 현지 양계 상황 및 발전 가능성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양계 프로젝트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만큼 마을마다 사업금이 늦게 도착한 점, 지역별로 계사 건축비가 상이한 점, 병아리 대량주문에 따른 재고 불충분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활동 진행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신경호 수의사의 조언처럼 오히려 활동 초기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며 방향을 재설정하고 향후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

보완교육 이후에는 각 수혜자들에게 제공된 양계지원사업 참여 현판을 들고 마을별로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세에서 수혜자들이 각자 계사에 걸게 될 현판과 함께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었다.

3. 후속세대 양성사업

1) 국경없는 교육가회, INU와 함께하는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7' 개최

지난 2017년 6월 26일~28일, 3일간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그리고 일가재단이 함께 주최한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7 with INU'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들에게 국제사회에서의 교육 부문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캠프이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현장 감각을 익히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캠프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이 8번째 진행된 캠프이다.

첫째 날은 조별시간 '만남'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어색함을 풀고 서로 점차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해' 주제로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의 장현식 센터장,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윤리와 철학' 주제로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BINGO)의 권기정 대표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국제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전반적 이론부터 활동가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및 윤리와 철학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한층 고취시킬 수 있었다. 특히나 이번 캠프에는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참가자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인지 각 강의별 질의응답 시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캠프 마지막 날 진행될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해 '그 나라에 대해 알려줘!'(국가별 정보제공 활동) 시간이 진행되었다. 국가별 정보제공 활동에는 네팔, 볼리비아, 부룬디 3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이어서 둘째 날에는 상명대학교 개발평가센터 변지나 연구교수의 '프로젝트 사업 기획 및 관리' 강의를 첫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캠프 사전 설문조사 시, 많은 참가자들이 실제



조별 문제나무 작성 실습 시간

개발협력사업이 어떻게 기획되는지가 궁금하다며 본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터라 3시간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가 대단했다. 참가자들은 이해관계자 분석부터 문제나무, 목표나무, PDM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기획 및 관리 단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본 강연은 이론 강연과 조별 실습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날 조별로 선정한 국가들을 토대로 문제나무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기획할 사업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으며, 조별 발표 후 피드백 과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신무역게임'을 통해 불공정한 국제 무역시장을 몸소 체험해보고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 1, 2 강연 모습 (오른쪽 박수정 EWB 사무국장, 왼쪽 한이정아 캠프 사무국장)

다음으로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박수정 사무국장과 캠프의 한이정아 사무국장이 차례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 1,2'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참가자들은 그간의 이론 강연

을 통해 학습했던 내용들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각 기관별 생생한 사업 사례를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둘째 날 마지막 순서로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안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조별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의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해보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밤늦게까지 자발적으로 열린 토론과 활동을 이어나갈 정도로 높은 열의를 나타내었다.



토크콘서트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종남, 조현아, 오혁준, 황현룡, 황선하 패널)

마지막 셋째 날에는 현장 실무자들과의 토크콘서트 및 멘토링 섹션이 진행되었다. 장기 해외 파견 경험 및 현재 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 중인 5명의 현장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의 패널로는 박종남 경희대 사회학 박사, 오혁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사, 조현아 HoE 사무국장, 황현룡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리, 황선하 나눔재단 월드채널 컨설턴트가 함께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 쪽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던 데다가 현장의 실무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참가

자들의 눈이 더 빛났다. 토크콘서트만으로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기에 희망 멘토별로 새로 조를 구성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멘토링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부터 연애 사업과 같은 사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가며 그간 진로에 관해 가졌던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안 발표회 모습

이후 마지막 시간으로 참가자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기획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안 발표회가 있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돋보이는 뛰어난 프로그램들이 발표되었다. 각 조별로 발표를 한 뒤에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발표내용에 대해 박수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간사들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의견을 교류하였다.

모든 순서가 끝이 난 뒤, 캠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미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조 또는 참가자 개인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캠프 후속활동 안내를 통해 이후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캠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캠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한 뒤 캠프 진행 요원 모두가 참가자 개개인에게 수료증을 나눠주는 것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됐다.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6 단체 사진

3일간 다소 빡빡하게 진행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준 미래의 청년교육가분들 덕에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모든 참가자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성공적인 캠프의 진행을 위해 애써준 모든 강사들과 열정적인 참가자들, 캠프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2)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7 후속활동 '배워주미 5기' 출범

지난 2017년 6월 25일~28일, 3일간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인천대학교, 일가재단이 함께 주최한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7”의 후속 활동인 '배워주미 5기'가 지난 9월 4일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배워주미 5기 오리엔테이션 진행 모습

'배워서 준다/나눈다'는 의미에서 착안한 '배워주미'는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그룹이다. 2012년도의 캠프 때 처음으로 배워주미 1기가 결성되었으며 올해로 제 5기의 배워주미 멤버가 구성되었다.

이번 배워주미 4기는 올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개발협력에 관한 학습 및 토론부터 전문가 초청 강연, 개발협력 사업 프로젝트 구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워주미 5기의 총 인원은 5명이며, 스터디원들끼리 모임을 진행하되 EWB가 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III. EWB 소식

1.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EWB 창립 10주년 기념식 참석자 단체 사진

5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홀에서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난 10년간 EWB를 지지해주고 성원해 준 70명이 넘는 내빈들과 EWB에서 근무한 전·현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1부는 김주훈 EWB 개발협력단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김주훈 개발협력단장은 “우리나라에서 NGO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해나가며 교육 NGO로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덕담을 나누는 (좌)김주훈 EWB 개발협력단장과 (가운데)문용린 전 교육부장관과
(우)윤희진 ㈜다비육종 회장

다음으로 문용린 전(前) 교육부 장관과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은 “김기석 대표님과 50년 지기로 그동안 옆에서 꼭 지켜봐왔지만, 이렇게 까지 EWB를 이끌어온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10년을 잘 해왔으니 다음 50주년을 준비하며 EWB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잘 실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은 “정말 젊은이들이 그 멀고 척박한 아프리카 땅까지 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매번 놀랍습니다. 사실 김기석 대표님과의 연으로 EWB를 후원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존경스러운 젊은이들이 애쓰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요.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기석 EWB대표와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 이인호 KBS 이사장, 그리고 직원대표로 박수정 EWB 사무국장과 백광순 전 EWB 부르키나 파소 파견 간사가 함께 창립 1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였다.

케이크 커팅 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저도 사실 EWB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첫 10년의 고비를 넘긴 만큼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없는 다수가 큰 힘을 발휘해서 세계의 교육 평등과 빈곤퇴치를 위한 길에 보탬이 되는 EWB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다” 라며 축배사를 건넸다.



1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 (왼쪽부터 박수정 EWB사무국장, 백광순 EWB 전 부르키나 파소 파견 간사, 이인호 KBS이사장,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 김기석 EWB 대표)

축배 후 다 같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2부 순서를 갖기 전에 자유롭게 축하 만찬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2부 순서로 박수정 EWB 사무국장이 EWB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발표를 하였다. 그간 EWB가 진행했던 국제개발협력사업, 국내 후속세대양성사업, 연구사업 등을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사업 중 대표적인 가파사업은 “값아”의 우리 고유 발음을 일치시킨 국제연대사업이다. 문해교육, 직업교육과 소액대출이 통합된 빈곤퇴치모델로 EWB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약 4개의 현지 주요 토착어와 프랑스어 문해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직업기술훈련, 경제교육과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도왔다. 가파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맹퇴치와 교육발전에 기여한 EWB와 협력파트너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9월에는 유네스코가 수여하는 문해상을 한국 기관 최초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후속세대 양성사업인 청년교육가 캠프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

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및 워크숍 캠프로 현재까지 7회 개최, 총 260여 명의 청년교육가를 배출하였다. EWB의 많은 직원들이 실제 캠프 참가자 출신이며, 이외에도 국내외 개발협력 분야의 기관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캠프 출신 참가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 파트너 기관에서 온 축하영상을 시청 중인 내빈들

이어서 국내외에서 우리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의 축하영상을 시청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인 광명의 양기대 시장이 축하인사를 전해왔다. 국외에서는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와 케냐 등 파트너 기관에서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라 함께 하지 못한 EWB 전 간사들도 축하 영상을 통해 10주년 창립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르키나 파소 공연단의 축하공연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아프리카 전통 예술 공연가로 활동 중인 부르키나 파소 출신 뮤지션 '아미두 디아밋(Amidou Diabate)'과 무용가 '마리아 야노고(Maria Yanogo)'의 특별 축하 공연으로 만찬의 분위기를 더욱 돋웠다.



EWB 미래 15년 계획을 발표 중인 김기석 EWB 대표

이후 김기석 EWB 대표가 EWB의 미래 15년 계획 및 포부를 밝혔다. EWB 직원 및 후속세대 지원을 통한 세계 빈곤퇴치 전문가 양성, 부르키나 파소 가파 사업의 국제 브랜드화, 일가가나안회관(ICC; Ilga Canaan Center)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서아프리카 적정기술 수준 향상 등 5개의 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끝으로 내빈들의 덕담과 축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마무리하였다.

2. 창립 10주년 기념 빈곤퇴치 자선 마라톤 행사

'Long run to Long learn' 개최



지구촌 이웃들의 Long learn을 위해 Long run 하러 모였다!
EWB 자선 마라톤 대회 참가자 단체 사진

지난 5월 20일,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빈곤퇴치 자선 마라톤 대회인 'Long run to Long learn'을 개최하였다. 이번 마라톤은 EWB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자선 마라톤 대회로, 지구촌 이웃들의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를 위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마라톤은 제 16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대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대회는 5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 모집은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5km 11명, 10km 8명, 하프 5명 총 24명이 EWB 소속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로는 EWB 사무국 외에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국경없는 마라토너로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참가자 모집과 더불어 후원금 모집도 병행하였다. 후원금 모집은 1)마라톤 참여를 통한 후원, 2)마라톤 참여 및 후원을 통한 참여, 3)후원 참여의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부상 방지를 위해 준비운동은 필수!
사회자 구령에 맞춰 열심히 스트레칭 중인 국경없는 마라토너들

대회 당일, EWB 부스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한 뒤, 사전 준비운동을 통해 충분히 몸을 풀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하프 - 5km - 10km' 순으로 출발하였으며, 완주한 뒤에는 다시 부스에 모여서 완주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번 마라톤에 참여한 이영은 씨는 "저는 늘 생각만 하고 정작 마라톤에 도전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뜻 깊은 기회를 통해 첫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좀 걱정됐는데, 막상 10 키로 완주하고 나니 해냈다는 뿌듯함과 행복함은 기대 이상이네요!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마라톤을 통해 얻었습니다. 또 마라톤을 통해 후원도 할 수 있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강추합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종훈 씨는 "'평상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다' 라는 지인의 말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던 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하프마라톤을 끝낸 지금 그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끼며 제 마음의

삶이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강하다는 깨달았고, 이번 마라톤을 통해 다시 얻게 된 하고자 하는 의지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EWB 에게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정말 다 좋은데... 마라톤을 마치고 나니 제 무릎은 더 이상 제 무릎이 아니네요... 하핫"라며 벅찬 감동을 표현했다.



전원 완주를 기념하며! 국경없는 마라토너들의 한 컷

대회 종료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서 맛있는 식사와 뒷풀이를 진행하며 이번 자선 마라톤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대회를 마무리하며 박수정 EWB 사무국장은 "창립 10 주년이 된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진행한 자선 마라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후원금 모집도 잘 진행되었고 참가자 전원 완주의 쾌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Long learn to Long run' 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3. 국경없는 교육가회 간사 가나안 농군학교 체험



의식개혁 단기과정 1184기 단체사진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민선홍, 이세진, 최재은 간사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 의식개혁(단기)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하였다.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의식개혁 과정은 가나안 개척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보며 개척정신을 배우고 일상에서 놓치고 살았던 귀중한 가치들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목표와 방향, 비전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강의뿐만 아니라 밤 10시 취침, 새벽 5시 기상 후 구보 및 운동, 농장체험 등 하루 일과 전체가 가나안 정신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듣고 지나가는 교육이 아닌 직접 실천함으로써 체화되는 생활교육과정이다.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부교장 선생님과 EWB, 일가재단, 가나안 간사들

“땀을 적게 흘리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눈물을 적게 흘린다.”라는 구호가 절로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을 보내고 온 세 간사는 다음과 같은 개인 체험 후기를 밝혔다.

[개인 체험 후기]

언행일치, 지행합일의 그곳 가나안 농군학교

민선홍 간사 (경영기획부)

작년 하반기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가나안 농군학교 일정이 드디어 잡혔건만, 솔직히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원래 평소의 일상 루틴이 깨지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내 식단과 내 운동(크로스핏)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 속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출발했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일정이었지만, 교육기간 동안 내 마음은 180도로 바뀌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사랑하고 여기저기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무엇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일단 다녀왔다 하면 모두가 강력 추천!을 외치게 만드는 가나안의 매력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모든 분들이 말한 대로 행

하고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이념인 '근로, 봉사, 희생'의 가치는 사실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몸 바쳐 일하고 겸손히 섬기며, 알도록 배우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2박 3일 과정동안 그 땀뻑한 하루 일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가나안은 교육생들을 향한 배려와 희생이 듬뿍 묻어나는 곳이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늦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가장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교관님들, 정말 우리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강사님들, 웬만한 맛집들은 아주 가뿐히 뛰어넘는 최고의 식사를 제공해주시는 조리사님들 등등 가나안의 모든 분들은 교육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봉사해주시고 희생하시면서 그 찬란한 사랑을 보여줬다. 물론 건물 곳곳마다 그 배려가 듬뿍 묻어났고 말이다.

나도 나름대로 대학시절부터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대학원 과정을 거쳐 지금은 이곳 국경없는 교육가회 간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가슴의 사명으로 품고 일상생활을 통해 주변을 섬기고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분들이 보여주시는 헌신과 사랑은 나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비영리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알량한 타이틀로 '이 정도면 됐지'하며 나를 합리화해왔던 것은 아닌지,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섬기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이 찾아왔다. 이를 통해 말과 행동이, 또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가나안 분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존경스러웠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매력에 흠뻑 빠진 덕택에 지금은 믿고 가는 가나안 학교!를 외치며 주변에도 널리 소개하고 있고 말이다. 언행일치와 지행합일,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가나안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나도 그곳에서 배운 귀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부모님 같은 학교

이세진 간사 (협력사업부)

원주 시내에서도 한 시간 정도를 자동차로 달려야 도착하는, 마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지낸 2박 3일은 나에게 어딘가로 멀리 여행을 다녀 온 느낌을 주었다. 물리적인 거리로도 멀리 갔지만 내 마음도 바쁜 삶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재정비의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하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의식개혁과정 중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시간 활용에 관한 것이다. 대학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을 하며 나에게 '바른 생활'의 개념이 희미해져 있었다. 사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누구도 나에게 하루 동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여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삶의 모든 순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라고 외친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체조를 할 때와 식사를 할 때는 그 구호를 나에게 외치게 한다. "새벽을 깨우자. 우리는 젊다. 할 일은 많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처음에는 낯설고 그다지 와 닿지 않는 것 같았지만 곱씹어볼수록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이 구호들과 매일의 강의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시간과 체력, 넘치는 식량, 가족의 존재 등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N포세대와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젊고 할 일은 많다'고 외치며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동시에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만이 부각되는 현실에 나도 모르게 지쳐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강의에서 김범일 교장 선생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고 가장 부요한 삶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하셨다. 교실 앞에 붙여져 있어 매일 큰소리로 복창했던 '근로, 봉사, 희생'이라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3대 가치는 나누는 삶을 실현하게 하는 가치인 것 같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21세기를 살고 있어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마음속에 이 가치를 새기고 땀 흘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와 시간

최재은 간사 (경영기획부)

입사 후 종종 듣기만 했던 가나안농군학교에 드디어 직접 참여하여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내가 교육받은 과정은 이름부터 “의식개혁” 과정으로 무언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밥이 정말 맛있다는 말에 그저 신나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입성했다. 원주역에서도 시외버스를 타고 더 깊이 들어가야 보이던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를 픽업 해주신 간사님 말씀대로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2박 3일은 다른 세계 같던 첫인상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개인주의 속에 사라져가는 희생정신, 바쁜 삶 속에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 출근하기 바빠 여유가 없는 아침,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 실천하지 못한 봉사 등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가나안 농군학교는 꾸준히 “근로, 봉사, 희생”을 외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근로, 봉사, 희생” 정신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쌀 한 톨도 안 남기고 치약도 4mm만 사용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등등 끊임없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한 가지 결론을 맺게 되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규칙적인 삶을 만들고, 또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만이 자연스레 봉사, 희생을 즐겁게 만들지 않을까! 내 맘대로 새로운 버전의 구호를 만들자면... 우리는 젊고, 사랑 할 사람은 많다! 사랑 할 수 있다! 사랑으로 근로, 봉사, 희생하자!

익숙하지 않은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 패턴에 힘든 느낌이 있긴 했지만, 오랜만에 아침 여유도 느끼고,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챙겨먹고, 산 속 공기도 누리고, 무엇보다 다른 생각 없이 내 삶에 중요한 가치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였다.

4. EWB BF-MENA 업무협약 체결



김기석 대표와 문해교육부 장관

7월 상반기 모니터링 출장을 통해 진행한 MENA(부르키나파소 기초문해교육부)-EWB_BF 업무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MOU는 향후 부르키나파소의 교육발전을 위한 진행 사업에 대한 자문, 인적지원, 물적지원 등 긴밀한 협력의 발판이 되었다.



MENA와 맺는 업무협약에 이어 재정경제부와의 향후 업무협약은 EWB_BF로 하여금 현지 비영리기구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EWB_BF는 재정경제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ICC 건립 위한 와가두구 9 구 시와 업무협약 체결

EWB 는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 내 알베르트 바마고(Albert Bamago) 9 구역 시장과 ICC 의 최종 부지로 결정에 따른 토지 사용 및 건축 허가와 관련된 최종 논의를 마치고, 지난 12 월 2 일 9 구역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바마고 시장은 와가두구시(市)에 배정된 행정구역 토지를 ICC 건립을 위해 흔쾌히 기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바마고 시장은 ICC 의 건립 목적과 ICC 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적정기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 와가두구 9 구역의 발전뿐 아니라 부르키나파소 전역 곳곳으로 퍼져나가 활동하는 현지 전문가 양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바마고 시장은 건축이 시작되면 자재 도난 방지를 위해 경비를 직접 고용,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금 모금에서부터 건립 계획 수립 및 논의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협력기관들의 도움을 통해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향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경없는교육사회는 일가재단과 지난 2014 년부터 적정기술관련 전문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일가가나안회관(ICC; Ilga Canaan Center) 건립사업을 공동 추진해왔다. ICC 를 통해 태양열, 물 문해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교육,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교육, 위생 및 영양 교육 등 다양한 기술연수가 제공될 예정이다.

6. 국경없는 교육가회-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 '교육, 응급상황에 맞서다' 토크콘서트 개최



토크콘서트 단체 사진 (출처=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가 주최하는 토크콘서트가 1 월 19 일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세계 최극빈 지역의 사람들이 기아와 맞서 싸우며 그들 스스로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7 개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기구이다. 아일랜드와 미국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 본부는 2015 년에 설립되었다. 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는 설립 이후, 정기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협력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교육, 긴급상황에 맞서다(Education in Emergency)'로 재해, 재난 등의 이유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콘서트는 2 부로 구성되었는데, 1 부에서는 이번 콘서트를 위해 컨선월드와이드 US 에서 특별히 초청한 '링컨 아조쿠(Lincoln Ajoku)' 교육 자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링컨 아조쿠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사태와 학교 재건, 시리아 난민 교육 지원 등을 비롯하여 긴급상황에 처한 국가에서의 교육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이다. 그는 왜 긴급상황 속에서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교육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2 부에서는 세 명의 패널과 함께 패널토의를 진행하였다. 패널로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박수정 사무국장, 컨선월드와이드 라이베리아의 파올라 리파몬티(Paola Ripamonti) 교육 코디네이터, 컨선월드와이드 US 의 링컨 아조쿠(Lincoln Ajoku) 교육 자문가 참여하였으며, 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의 박희영 대리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토의는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 시 받았던 사전 질문들과 현장 객석으로부터 받은 즉석 질문들에 대해 패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에 답변 중인 EWB 박수정 사무국장 (출처=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박수정 사무국장은 부르키나 파소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르키나 파소는 한 국가 안에서도 60 개가 넘는 다른 언어가 있어 사회 통합이 어려운 나라인 동시에 27 년 간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며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는 정치적 혼란기를 겪은 나라,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인 나라로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긴급상황에 처한

국가에서 8 년 넘게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일 저녁 7 시에 진행된 토크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교육과 개발협력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100 명이 넘게 사전 참가 신청을 해주었으며, 당일 현장에도 준비한 좌석이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주었다. 특히나 현재 유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 못지않게 대학(원)생들도 많이 참석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 단체 사진 (출처=컨선월드와이드 코리아)

교육은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심각한 기아 또는 재난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와 개인이 절망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교육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상황 속에서 빠르게 중단되고 늦게 재개되는 것 역시 교육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만 보더라도 교육은 가장 뒷전이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창립 이래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사명에 방점을 두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다. 그렇기에 이번 토크콘서트 주제는 특히나 더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주제였고, 콘서트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었다.

IV. 2017 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

1. 2017 년 결산 보고

단위: 원

2017 년 수입	2017 년 지출	당기수익
494,566,339	368,746,675	475,197,664

2. 2017 년 수입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2,827,660	
후원금		정기후원금	28,771,960	
		부정기후원금	85,399,094	
		소계	114,171,054	
사업수입	사업수입	광명시-BF 평생학습관	70,900,000	
		나눔과 꿈	93,076,958	
		ICC 건립기금 모금	2,800,000	
		청년인턴	70,310,600	
		세네갈 교육사업	15,317,780	
		KEDI 연구사업	14,000,000	
		청년캠프	1,933,253	
		소계	268,338,591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	132,339	
	기타수입	기타	7,091,594	
		소계	7,223,933	
합계			492,561,238	

3. 2017 년 지출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협력사업	사업활동비	광명시-BF 평생학습관	70,910,699	
		나눔과 꿈	92,505,709	
		ICC 건립기금 모금	2,693,522	
		청년인턴	51,796,910	
		세네갈 교육사업	43,120	
		KEDI 연구사업	12,567,726	
		청년캠프	3,146,700	
	소계			233,664,386
경영기획	법인운영비	인건비	49,394,554	
		사무국운영비	33,473,391	
		세금	290,510	
		기타	51,923,834	
	소계			135,082,289
합계			368,746,675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국경없는 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후원 및 후원 문의

1. 후원계좌
농협) 079-01-473722 / 국민) 371101-04-038375 국경없는 교육가회
2. 회원가입 및 문의: <http://www.ewb.or.kr> / ewb@ewb.or.kr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 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만민교육 1,000만원 이상, 빈곤퇴치 100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원 이상)

- **만민교육 후원자**

노임환(엠디그린), 다비육종(윤희진), 박영숙

- **빈곤퇴치 후원자**

고선윤, 구경모, 김기석, 김진환(학지사), 김찬란, 류방란, 모선일, 박창균, 손영우, 양진모, 우신자, 이병훈, 허남순

- **문맹퇴치**

곽병선, 권지공, 김경일, 김어진, 김주훈, 김철재, 김활란, 노정혜, 문국현, 문삼은, 문헌규, 민선영, 민선홍, 박태훈, 박환보, 쉐위베이크, 신민선, 신봉철, 양일선, 오은빈, 우신자, 윤경선, 이미호, 이인효, 이재찬, 이칭찬, 이형윤, 이호국, 임태수, 장용훈, 한상우, 허남순, 홍정길

(사)국경없는 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